

20세기 후반 여성 스포츠웨어의 성(性)적 이미지에 관한 연구

李孝眞·姜琳雅

전북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의류학과 교수, 전북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의류학과 대학원

A Study on the Sexual Image of Woman's Sports Wear in the Latter Half of the 20th Century

Hyo-Jin Lee and Lim-Ah Kang

Associate Professor,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Cheonbuk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Cheonbuk National University

目次

Abstract

I. 서론

II. 스포츠웨어의 출현 배경

III. 일상복으로 나타난

20세기 스포츠웨어의 변화

IV. 스포츠웨어에 표현된 성(性)의 이미지

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As sports infiltrates each field of modern society and becomes familiar, sports wear was changed functionally and was introduced and enveloped into everyday dress. Modern sports wear has been the settled in everyday life deeply and become the clothes of life which are worn regardless of place, time and age.

The aim of this paper was to clarify what kind of fashion of sports style would be given to the modern people.

In this study, sports wear which has become everyday dress was classified from a gender point of view. It was divided into masculine image, feminine image, and neutral image.

Sports wear of masculine image generated a silhouette which emphasized the shoulder with the aspiration for youth and health. Wide shoulder was considered as the symbol of masculine beauty and the expression of healthy beauty. It was reflected well in body conscious look.

And owing to the development of up-to-date materials, innovation of design, and the study of human body technology, the functional character was settled in the sports wear which showed masculine image.

Sports wear of feminine image was represented fashion of body exposure, body feet with body conscious look, and romantic mode.

This image was expressed fashion as comforts, pleasant, active design, materials, color, and romantic feminine beauty.

Sports wear of neutral image was expressed into unisex clothes. This cloths have no difference in gender, age, and class. It was used as casual sports wear. In the 1960s, young generation participated in such street sports as street basketball and skate. They usually wore the sports wears of neutral image such as cycling, skating, and ski.

In the materials of sports, the development of up-to-date material like lycra made the sayings lifelike, "up-to-date material is the second skin" It show that glamorous feminine image and strong masculine image coexisted.

The contemporary concept of sportswear is no longer limited to those clothes for sports found in such places like tennis court or swimming pool. Now, the sports wear become more like casual activity wear all classes of people can enjoy in their life regardless of where they are, when they wear, and even how old they are.

I. 서 론

인간은 고대 이전부터 스포츠를 즐겼으며 스포츠웨어는 역사적 변화와 함께 발달되어 왔다. 그러나 기원전의 이집트 군대의 래슬링과 그리스의 단거리 경주¹⁾에 나타난 유물에서 찾아보면 나체로 경기를 하였고 그후 점차 일상복인 로인클로스(loincloth)를 착용하였으나 경기를 위한 전문적인 스포츠웨어는 나타나지 않았다.

17세기경부터 유럽은 사냥복, 승마복을 시작으로 구기용, 등산용의 의복이 각 스포츠 종목에 맞게 착용되기 시작하였으나 많은 발전은 하지 못했다. 19세기에 들어서면서 산업혁명과 과학기술의 발달로 경제적인 발전이 이룩됨에 따라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등산, 골프, 사이클링, 승마, 테니스, 수영 등의 스포츠를 즐기게 됨에 따라 그에 맞는 스포츠웨어가 나타나게 되었다. 그리고 여성의 복장개선을 위한 블루머 스타일이 권장되었고 자전거의 발명으로 여성을 위한 니커보커(knickerbockers)등이 유행되어 여성복의 기능적인 발전을 촉진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남녀를 위한 활동적이고 기능화 된 스포츠웨어가 발달하게 되었다²⁾.

스포츠는 현대사회와 인간의 삶을 윤택하게 이어주는 동시에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으며 스포츠 산업은 날로 번

창하고 스포츠는 현대사회의 핵심적이며 보편적인 사회현상으로 자리잡고 있다.

따라서 오늘날의 스포츠웨어는 스포츠 행위를 증진시켜 주는 운동복의 역할을 뛰어넘어 일상복으로 널리 착용되고 있으며 스포츠와 스포츠웨어는 단순히 유행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아니라 복식디자인에 영감을 주는 이미지를 제공할 뿐 아니라 복식디자인의 한 분야에서 전반적인 유행을 창출해 나가고 있다.

본 연구는 20세기 후반의 스포츠웨어의 성(性)적인 이미지에 대한 의미를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 먼저 스포츠가 발생하고 보급되었던 20세기 전반의 배경에 대해 고찰하기 위해 II장에서 스포츠웨어의 출현 배경과 III장에서 일상복으로 나타난 20세기의 스포츠웨어의 변화에 대해 이론적인 고찰을 진행하였다.

이에 본 논문은 현대 복식에 다양한 형식의 성격 이미지로 표현되는 스포츠웨어가 일상복으로 깊숙이 자리잡고 있으므로 스포츠웨어를 성의 관점에서 분석하여 스포츠와 함께 여성복식의 변화하는 양상을 밝혀보며 일상복으로 정착한 스포츠웨어의 위치를 인식하는데 그 목적과 의의를 두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복식변천에 대한 문헌자료와 스포츠웨어 관계서적을 중심으로 고찰하였고 패션에 관계된 석·박사 논문과 국내·외 서적과 패션전문지 등의 간행물 그리고 사진자료 등을

1) 서울시 교육위원회, 올림피아 교육자료, 1984, p.24.

2) 원해정, 스포츠웨어의 머천다이징을 위한 텍스타일 디자인연구, 상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 p.9.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II. 스포츠웨어의 출현 배경

고대 부족국가 시절에는 모계혈통을 중심으로 한 강한 모계사회였는데 고대사회로 넘어오면서 부계사회로 그 권한이 여성들은 천대를 받는 하찮은 존재³⁾로 다루어지게 되었다. 중세로 들어오면서 부권사회는 확립되어 남성들은 상체를 강조하고 바지를 착용하였으나 여성들은 순종이라는 역할의 굴레로 인하여 남성들이 원하는 미관상 아름답게 보이는 불편한 의상을 그대로 착용하였다.

중세이후 남성이 지배하는 부권사회는 수 천년 동안 많은 문화권의 여성들을 유행과 정숙성 그리고 여성다움 등의 표현으로 신체를 부자연스럽게 만들었다. 여성의 지위는 종속적이고 자유가 없었기에 남성이 원하는 여성의복은 신체를 조이고 돌려짜매여 늘어뜨리는 불편하고 활동에 제한을 받는 의상을 착용하였다.

그러나 여성운동가들의 끊임없는 노력과 회생 그리고 자아의식의 변화로 여성들은 점점 더 속박하였던 부자유스럽고 비위생적인 의상으로부터 편리함과 활동성을 인식하게 되어 여성의상 자체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고 그후 여성들을 위한 활동성이 좋도록 고안된 스포츠웨어가 발달하게 되었다.

따라서 스포츠웨어의 발달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던 중요한 배경으로 여성해방운동의 영향으로 변화된 서구 여성복식 중 코르셋(corset)의 추방과 여성복에 바지등장, 그리고 직업복으로 등장한 테일러드 수트(tailored suit)의 등장에 대해 고찰하고자 하였다.

1. 코르셋의 추방

중세 이후 여성들의 체형을 변형시키고 인체 내부기관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코르셋은 여성들

의 미적 표현수단이 되어 연약함과 아름다움을 나타내기 위해 계속 착용하여야 했다.

특히 인간의 존엄성을 나타내려는 인본주의 이념에 의한 르네상스(Renaissance)운동이 일어났던 16세기의 의상은 가느다란 몸체에 크게 부풀린 스커트가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요소로 자리잡았다.

그러나 바로크(Baroque)시대에 이르러서는 스커트를 크게 부풀리기 위해 사용하였던 버팀대가 사라지고 상체를 조이던 금속제와 나무로 만든 코르셋도 활동하기 편하고 부드러운 실루엣으로 변하였다⁴⁾. 우아함과 감미로움을 특징으로 하는 로코코(Rococo)시대에는 화려하고 장식적인 예술양식이 여인들의 의복에 나타났다. 허리는 코르셋으로 가늘게 졸라매어 가냘픈 여성미를 나타냈으며 스커트는 파니에(panier)⁵⁾로 허리 양측을 넓게 부풀려 솟아오르는 실루엣을 이루었고 꽃이나 리본으로 화려하게 장식하였다⁶⁾.

그러나 왕정복고 시기에는 가느다란, 부풀린 스커트 등의 유행이 사라지고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복식을 회상케 하는 자연스러운 신체의 선을 살린 엠파이어 스타일(empire style)이 나타났다. 따라서 코르셋이나 스커트 속의 받침대는 그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19세기중엽 새로운 의상(bloomer costume)의 출현으로 여성들은 건강해졌으며 건강을 위한 스포츠 참여에 관심이 많아져서 스포츠 참여시 이의상을 입기 시작하였으며⁷⁾ 여성들은 점점 더 속박하였던 부자유스럽고 비위생적인 의상으로부터 일시적인 해방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러나 19세기 후반에 여성들의 신체를 속박하여 비위생적이고 비활동적이며 과장된 스타일의 퀸고집이라 할 수 있는 크리놀린(crinoline) 스타일이 등장하여 여성들을 하나의 숨쉬는 인형으로 만들었다. <그림 1>은 당시 코르셋의 광고로 여성들의 허리둘레보다 힙의 둘레가 더 작음을 나타내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3) 이효재, 여성과 사회, 정우사, 1989, p.140.

4) 정홍숙, 복식문화사, 교문사, 1993, p.167.

5) 스커트를 부풀리기 위한 버팀대로 금속, 고래수염, 나무줄기로 만들었다.

6) Ibid., p.200.

7) 락미영, 여성해방운동이 서양복식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0, p.22.



<그림 1> 19세기 후반의 코르셋 광고 (*A History of Fashion*, p.153)

한편, 생활에 곤란한 점을 느끼기 시작한 여성들 사이에서 반크리놀린 운동이 확대되면서 스커트의 넓이가 점점 축소되고 1870년경부터 버슬 스타일(bustle style)이 등장하게 되었다. 이 스타일은 이제까지 성행되어온 부플리턴 스타일이 뒤로 모아져 나타났으며 1890년경에는 버슬 스타일이 사라지고 옆으로 본 실루엣이 S자형으로 보이는 S자형(S-curve)스타일이 나타났다⁸⁾.

1910년에는 여성의상에 큰 변화가 일어났는데 아르데코(Art Deco) 패션의 대표적인 디자이너인 폴 푸아레(Paul Poiret)는 자연스러운 곡선을 그대로 드러내서 여성미의 우아한 아름다움을 나타낸 스트레이트 실루엣(straight silhouette)을 제시함으로써 S자형 실루엣을 입은 여성들을 코르셋으로부터 과감히 탈피시켜 육체적인 구속에서 해방시켰다.

따라서 1920년경에는 직선적인 실루엣이 유행하였고 많은 여성들은 몸통을 죄는 코르셋에서 해방되었고 활동하기 편해졌다⁹⁾.

또한 1차 세계대전에 군인으로 나간 남자들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여성들은 사회에 진출하게 되었고 이러한 여성들의 사회적 진출은 여성복장

에 커다란 변화를 일으켰으며 여성들은 허리를 조이던 코르셋을 추방하고 편안한 의상인 튜브라 스타일(tubular style)을 입었다¹⁰⁾.

이처럼 중세 이래 4~5세기동안 여성의 몸을 죄었던 비위생적인 코르셋은 여성들의 사회진출, 스포츠에 대한 관심 확대, 기능적이고 활동적인 의상에의 추구로 인한 자연적인 실루엣에 의해 거의 폐지되었다¹¹⁾.

이렇듯 여성들을 속박하던 코르셋에서의 해방은 여성들도 하여금 편리함과 활동성을 인식하게 하였고 건강을 위한 스포츠 참여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게 되었으며 활동성이 좋은 스포츠웨어의 발달에 초석이 되었다.

2. 바지의 등장

여성의 지위가 낮고 활동영역이 주로 가정에 제한되었던 시기에 여성은 활동을 방해하는 의복을 입었으나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여성의 자아의식이 싹트고 자유와 해방을 원하게 되면서 여성 의복의 형태는 남성복의 특징을 띠는 경향으로 변모하였다¹²⁾. 그중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여성의 바지착용이라 할 수 있다.

중세이후 19세기초까지 여성의 걸음으로서 바지의 형태는 거의 존재하지 못하였고 속옷으로서도 16세기 이탈리아에서 드로워즈 형태가 처음 착용되었고 17세기 중엽부터는 프랑스 여성들 사이에서 칼송(calegon)이라는 짧은 속바지를 입기 시작했지만 일반화되지는 못하였다¹³⁾.

그러나 생활 전반에 걸쳐 시민화가 이룩된 양정복고시절 여성복식에 커다란 변화가 있었다. 즉 활동에 편리한 바지가 등장했는데 중세 초기 이래 오랫동안 남성 전용으로만 생각되어 왔던 바지가 처음으로 여자의 의상으로 격용된 것은 스포츠의 영향 때문이다. 이 당시 승마가 남자들 간의 인기 있는 스포츠로 유행되었고 이것이 보급되어 여자들도 승마를 즐기게 되면서 바지를

8) *Ibid.*

9) 김미선, 근대 서구여성복식의 기능화 요인에 대한 고찰, 숙명여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3, p.18.

10) 정홍숙, *op. cit.*, p.169.

11) *Ibid.*, p.296.

12) Marilyn J. Horn, Lois M. Gurel, (이화연, 민동원, 손미영 옮김) *The Second Skin*, 까치, 1988, p.215.

13) 문경옥, 기능적으로 본 여성양복바지의 변천에 관한 고찰-19세기와 20세기를 중심으로-, 숙명여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1, p.9.

착용하게 된 것이다¹⁴⁾.

1848년 2월 혁명이 지나고서 프랑스의 사회주의자로 유명한 생시몽(Saint Simon)주의자들은 진보적인 운동의 하나로써 여성들의 바지착용을 제창하여 센세이션을 일으켰다¹⁵⁾.

또한 1850년대 미국에서 일어난 여성복장개혁 운동은 여성의복을 여성해방운동의 한 표현으로 혁명화시키자는 운동이었다. 이에 여성최초의 신문인 'Lily'지의 편집자인 아멜리아 블루머(Amelia Bloomer)는 블루머 의상을 제안하였다¹⁶⁾. 이 의상은 여권존중과 남녀평등의 의미를 내포하

고 있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좋은 반응을 얻지 못했으며 남성의 옷차림을 모방한 것¹⁷⁾이라는 비난을 받기도 했었다(그림 2).

블루머 의상은 여성들에게 편리하고 기능적인 의상을 제안한다는데 의의가 있었으며 남자와 동등하게 여성도 바지를 입고 활동할 수 있다는 의식변화의 계기¹⁸⁾를 만들어 주었다.

또한 여성도 남성과 동등하다는 여성해방운동이 더욱 활발해져 건강과 편안함이 아름다움으로 인식되었던¹⁹⁾ 19세기말에는 부인들 사이에 사이클링(cycling)이 유행하여 블루머 의상이 다시 등장했다. 이런 상황은 여성들을 더욱 활동적으로 만들었고 옥외에서 테니스, 스케이트, 보트 타기, 자전거 타기 등의 스포츠 참여가 활발해지게 되었으며 일상복으로 바지를 입게 되기까지 19세기말과 20세기초의 과도기적 역할을 담당하였다.

1910년대 러시아 발레를 통해 소개된 동양의 의상디자인은 여성 의상 실루엣의 변화를 가져오게 한 커다란 영향 중의 하나였다. 터키풍(Turkey)의 하렘(harem)바지와 터번은 많은 의상디자이너들에게 큰 영감을 주었으며 터키풍의 의상은 당시 이브닝웨어로 착용되었다²⁰⁾.

19세기말부터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까지의 시기에 블루머, 터키풍의 팬탈롱(pantaloon), 니커보커 등은 광범위하게 착용되지 않았지만, 종류면에서 비교적 다양한 바지형태가 출현하였다고 볼 수 있다²¹⁾. 제1차 세계대전동안 여성들의 활발한 사회활동과 여성의식의 변화로 모든 여성의복이 남성화되었다²²⁾.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 후 미국은 데님(denim)으로 만든 블루진(blue jean)을 대량생산하여 블루진은 젊은이들 사이에서 대유행하였으며²³⁾남녀노소에 관계없이 널리 애용되었다. 따라서 여성이 바지를 일상복으로 입게 되었다는 것은



<그림 2> 블루머 의상 (A History of Fashion, p.140)

14) 정홍숙, *op. cit.*, p.250.

15) *Ibid.*

16) 박혜자, Bloomer의상의 역사적 고찰, 경희대학교 논문집 제16권(인문사회과학편), 1987, p.230.

17) *Ibid.*, p.234.

18) 락미영, *op. cit.*, p.39.

19) 김미선, *op. cit.*, p.59.

20) 정홍숙, 근대복식문화사, 교문사, 1989, p.173.

21) 문경옥, *op. cit.*, p.9.

22) 문경옥, *op. cit.*, p.42.

23) *Ibid.*, p.42.

여성도 남성과 동등하게 활동적으로 생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스포츠웨어를 발달하게 하는 기본적인 밑바탕이 되었다.

이렇듯 스포츠웨어의 바지등장은 여성도 남성과 동등하게 바지를 입고 활동할 수 있다는 의식 변화를 계기로 시작되었으며 편안함과 기능성의 인식과 건강에 대한 관심증진, 그리고 사회 전반에 걸쳐 스포츠가 유행하면서 스포츠웨어로서 그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3. 테일러드 수트의 등장

17세기 후반 영국에서 도입했던 르탱고뜨(redingot)의 착용은 여성의상에 테일러링이 나타나기 시작한 기원이 되었으며 여성의복의 원피스 드레스 시대에서 투피스의 수트 시대로 넘어가는데 많은 영향을 미쳤고²⁴⁾ 바지와 함께 남성복식에서 빌려온 스포츠웨어 중 중요한 것은 르탱고뜨라 할 수 있다.

18세기 영국의 승마복에서 유래된 르탱고뜨는 더블 브레스트와 이중칼라 그리고 짧은 케이프가

달려있는 코트를 말한다. 18세기말부터는 여성들도 이것을 승마 시 착용하기 시작하였고 드레스에도 이 스포티모드가 적용되면서 기능적인 의생활로 옮겨지기 시작하였다²⁵⁾.

이렇듯 테일러드 수트의 착용으로 여성의상의 간소화, 또는 남장화라는 대담한 변혁은 남자복과 같은 더블칼라(double collar)의 재킷과 스커트가 분리된 활동적인 투피스 수트가 나오게 되었고²⁶⁾ 19세기 영국여성의 스포츠가 기초를 이루는 수트가 등장하였으며²⁷⁾ 어떤 생활과 장소에도 잘 어울리는 편리함 때문에 이 의상은 모든 계층으로 보급되었다. 또한 블라우스와 스커트로 간편하게 차려입은 여성들이 늘어났다.

이후 19세기에 테일러드 라인의 웨이스트 코트와 재킷, 베스트가 다양하게 착용되기 시작하였으며 노포크 재킷(norfolk jacket)²⁸⁾과 같은 다양한 형태로 발전해 20세기²⁹⁾의 거의 모든 시기에 걸쳐 유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스타일의 의상은 특히 사냥이나 승마 시에 많이 착용되었으며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여성들은 누구



<그림 3> 19세기 후반 스포츠를 즐기는 여성들 (A History of Fashion, p.147)

24) 조정미, 스포츠가 복식디자인에 미친 영향에 대한 연구, 카톨릭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집 제 15권 1호, 1995, p.12.

25) Black, J. Anderson, & Garland, Madge, A History of Fashion, William Monow's Com. Inc., 1975, p.209.

26) 정홍숙, 복식문화사, op. cit., p.274.

27) Ibid., p.279.

28) 19세기말 영국에서 유행했던 벨트가 달린 재킷으로 앞과 뒤에 주름이 있고 보통 트위드로 만들었다. 현재에도 운동할 때나 여행할 때 니커보커와 함께 착용한다.

29) David Bond (정현숙 역), 20세기 패션, 경춘사, 1992, p.8.

나 활동하기 편리한 스포츠웨어를 착용하였다 (그림 3).

제 1차 세계대전 결과 여성들이 사회로 활발히 진출하게 되어 이전에 즐겨 입던 긴 치마단은 전쟁과 더불어 짧아졌으며 1920년대에 테일러드 슈트가 정립되었고 여성들은 기능성을 요구하는 시대감각에 맞도록 니트로 제작한 스리피스 슈트를 입기도 하였다³⁰⁾.

또한 많은 여성들은 활동적인 스포츠를 즐기기 시작하였고 이러한 여가활동을 즐기기 위한 적합한 의상이 디자인되었으며 20세기의 활동적인 스포츠웨어는 직업복의 유행에 많은 영향을 끼쳐왔다.

여성들의 테일러드 슈트의 착용은 오랫동안 투쟁해 온 여성운동가들의 노력의 결실과 여성들의 의식변화 그리고 여성의 사회참여가 활발해짐에 따라 일반화되었으며 활동적인 여가활동을 위해 스포츠를 즐기기 시작하면서 스포츠웨어가 일상 생활에 깊숙이 정착하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

III. 일상복으로 나타난 20세기 스포츠웨어의 변화

스포츠는 현대사회의 각 분야에 깊이 침투되어 일상화되어짐에 따라 스포츠웨어는 최근 1세기 동안 유행에 많은 영향을 미친 것 중의 하나이다³¹⁾. 따라서 현대 스포츠웨어는 테니스 코트나 승마장 그리고 스키장에서만 입는 옷으로 국한된 것이 아니며 때와 장소, 나이에 상관없이 입을 수 있는 생활 속의 옷이 되었다.

이에 본 장에서는 스포츠웨어를 기능적으로 변화되어 일상복으로 도입이 시작되는 단계와 일상복으로 발전하는 단계, 그리고 스포츠웨어가 일상 생활에 깊숙이 정착된 단계로 구분하기 위해 20세기를 초기, 중기, 후기로 크게 나누어 스포츠

웨어의 변화과정을 고찰하였다.

1. 도입기

스포츠의 일반적 어원은 중세 이전의 라틴어인 'DISPORT'³²⁾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기분 전환'이라는 기본적인 의미와 여가와 경쟁이라는 추가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현대 패션에서 '스포츠'라는 말이 들어간 모든 옷은 움직이기 쉽고 편안한 활동복을 의미하게 되었다³³⁾. 19세기 이후 스포츠가 유행하기 시작하면서 다양한 스포츠웨어가 나타나게 되었고 이 스포츠웨어는 기능적이고 편안하면서 밝고 명랑한 이미지 때문에 곧 평상복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20세기에 들어서 스포츠웨어가 점차 대중화되면서 실제 운동시 착용하는 액티브 스포츠웨어(active sports wear)³⁴⁾와 평상복이 구분되어지고 운동경기를 관람하는 사람을 위해 만든 형식적이면서 테일러드한 스펙테이터 스포츠웨어(spectator sports wear)³⁵⁾가 생겨나면서 일반패션에도 많은 영향을 미쳐왔다.

1900년경에 자동차 운전이라는 새로운 스포츠는 패션에 영향을 미쳐 오픈카를 운전하기 위해 특별한 스포츠웨어를 입었으며³⁶⁾ 실외운동을 자극하여 캠핑, 휴양지 여행, 골프, 낚시, 등산 등을 모든 사람들에게 가능하게 했다.

또한 1914년에 시작된 전쟁기간에는 여성복의 공장노동과 사회진출로 인해 여성복은 활동적이고 기능적이며 실용성을 띠게 되었다³⁷⁾. 전쟁으로 인해 경제가 위축되어 소재는 실용적인 것이 사용되었으며 입기에 편하고 관리하기 쉬우며 자연스러운 것이 착용되었다.

1920년대에 야외 스포츠의 발달로 기능적인 스포츠웨어가 처음으로 등장한 이후 1928년에 스포츠웨어는 대중화되었고 패션잡지에 스펙테이터

30) 정홍숙, 근대복식문화사, *op. cit.*, p.192.

31) Martin, Richard, *All American: A Sports Wears Tradition*, F.I.T., 1985, p.12.

32) 대한체육회, *op. cit.*, p.39.

33) 이영민, 스포츠웨어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1992, p.52.

34) 본격적으로 스포츠를 할 때 착용하는 의복으로 스포츠의 종류에 따라 명칭이 달라지기도 하며 스포츠 경기를 위한 유니폼으로 야구, 축구, 농구, 유도 등의 의복이 있으며 일정한 규정은 없다.

35) 스포츠를 관람할 때 입는 의복으로 일반적으로 편안하고 손질이 쉽고 캐주얼한 의복이다.

36) Contini, Mila, *500 Years of Fashion*, Chartwell Book Inc., 1977, p.138.

37) 유송옥, 복식의장학. 수탁사, 1975, p.32.

스포츠 스타일이 소개되었다. 따라서 액티브 스포츠웨어와 평상복은 뚜렷이 구분되어지고 스펙테이터 스포츠웨어가 패션에 영향을 미쳐 대중을 위한 캐주얼웨어가 시작되었다.

1910년에서 20년대 사이에 스포츠웨어를 전문으로 디자인하는 디자이너들이 생겨났으며 이들은 운동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운동관람자들을 위해 편안함과 기능성을 강조한 전문화된 의복을 개발하였다.

중년의 모드라 할 수 있는 1930년대는 색셔어 필에 중점을 둔 디자인이 눈에 띄었는데³⁸⁾ 수영복과 테니스복 등에서 과감한 노출이 있었다.

이 시기에 모든 사람을 위해서 활동적인 스포츠가 보급되기 시작한 것은 지역사회가 계획한 레크레이션과 보이스카우트, YMCA, YWCA에서의 스포츠활동이 1930년대의 경제공황동안 강화되었고³⁹⁾ 수상스키, 달리기, 펜싱, 등산 등의 활동적인 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스포츠웨어가 일상복에 크게 영향을 주었다.

1930년대 미국에서는 두 가지의 획기적인 발명이 있었는데 라 텍스(la tex)⁴⁰⁾와 슬라이드 웨스트너(slide fasther)⁴¹⁾였다. 라 텍스는 둥글고 신축성이 있어 변형하기 쉽고 슬라이드 부드럽게 여달을 수 있는 웨스트너는 다양한 색상으로 제조되어 여밈의 분체가 해결됨에 따라 후크나 단추 대신 여밈에 사용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기능적으로 변화된 다양한 스포츠웨어는 20세기 초기 스포츠가 유행하기 시작하면서 대중을 위한 캐주얼웨어로 입혀지기 시작했으며 작업복과 스포츠웨어의 형식과 스포티 이미지가 복식디자인에 도입된 시작이라 할 수 있다.

2. 발전기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군복에 영향을 받은 남성적이며 활동적인 테일러드 수트 스타일의

밀리터리 룩(military look)이 여성들에게는 완전히 실용적인 기능복이 되었으며 1946년까지 계속하여 착용하였다. 이후 크리스찬 디오르(Christian Dior)가 뉴욕(New look)을 발표하면서 여성적이고 우아한 옷들이 유행하기 시작하였고 패션은 스포티한 이미지와는 잠시 벗어나 있었다.

그러나 1950년대에 이르러서는 교외생활이 확산됨에 따라 영 패션산업이 본격적으로 활기를 띠게 되어 캐주얼한 스포츠웨어가 널리 착용되었다. 여가시간이 늘고 소득이 높아져 여행을 즐기는 중산층이 늘어나면서 경제한 라이프 스타일을 위한 캐주얼웨어의 필요성이 새롭게 등장하였다.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청년들은 성인사회의 전통적인 가치관과 상징에 대하여 도전하였으며 여성해방운동의 활성화와 개인주의가 강조되었다.

한편 이 시기에는 스포티 이미지가 다시 패션에 도입되어 스포티브 룩(sportive look)⁴²⁾이 유행하기 시작하여 작업복과 스포츠웨어 형식의 감각을 살린 디자인이 정장으로 이용되었으며 기능적이며 단순하고 단추나 포켓을 많이 사용하였다⁴³⁾.

이 시기는 현대디자인의 기본원리인 기능성과 단순성에 기초한 기능주의가 절정을 이루었으며 발렌시아가(Balenciaga), 앙드레 꼬레쥬(Andre Cour ges), 피에르 가르맹(Pierre Garding), 이브 생 로랑(Yve Saint Laurent) 등에 의해 패션계에 다양한 스포티 이미지가 창출되었다.

발렌시아가는 포켓과 단추의 기능성을 살린 재킷 스타일을 디자인하였고 피에르 가르맹은 우주복 형태의 스페이스 룩(space look)을 제시하였으며, 앙드레 꼬레쥬의 디자인은 강하고 현대적이며 1960년대의 우주탐험에 대한 흥미를 의복에 반영하였다⁴⁴⁾.

또한 이브 생 로랑은 팬츠 수우트(pant suit)를 발표하여 바지가 스포츠웨어로 뿐 아니라 정

38) Julian Robison, *Fashion*, Oresko Books Ltd., 1978, p.85.

39) 신영진, 양복바지에 관한 역사적 고찰, 홍익대 산업미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4, pp.197-204.

40) La tex는 상표명이며 이것은 고무심이 든 실을 말한다.

41) 부드럽게 여달을 수 있는 지퍼이다.

42) 스포츠복의 디자인을 일상복에 응용한 것을 말한다. 셔츠 룩, 사파리 룩, 밀리터리 룩, 테니스 룩 등 많은 종류가 있으며 1960년대 후반 이후 패션의 커다란 주류가 되었다.

43) 정홍숙, 복식문화사, p.308.

44) 정홍숙, 근대복식문화사, p.308.

장과 타운웨어로 입혀지면서 기능적인 직장복의 스포티 이미지가 정착되었다.

이와 같이 스포티 이미지는 발렌시아가와 이브 생 로랑에 의해 성숙하면서도 기능적이고 프로페셔널한 느낌의 직장복 이미지와 미니스커트를 유행시킨 메리퀀트(Mary Quant)의 영록(young look)의 이미지가 주류를 이루었다.

1960년대의 패션은 젊은 세대를 위한 영록으로 기성복 산업과 더불어 티셔츠, 블루진 등이 대량 생산되었고 대학문화가 형성됨에 따라 공부하며 부담없이 즐길 수 있는 편하고 활동적인 의복이 필요하게 됨에 따라 캐주얼 스포츠웨어가 일상생활에 널리 입혀지게 되었다.

이렇듯 20세기 중반의 스포츠웨어는 패션에 스포티 이미지가 도입되는 계기를 마련하여 유행하기 시작하였고 시대에 따라 다양하게 발전하는 하나의 고정적인 이미지가 되어 발전하였다.

3. 정착기

1970년대에 들어오면서 건강과 취미생활의 붐이 일어나면서 조깅, 테니스, 수영, 에어로빅 등의 스포츠가 붐을 이루었다. 특히 달리기 of 보급으로 조깅웨어(Jogging wear)가 패션의 요소로 등장하였으며 1970년대 중반에는 스케이트보드와 롤러스케이트가 유행되었다. 그리하여 이들을 위한 스포츠웨어로 신축성 있고 새로운 광택을 가진 라이크라(lycra)⁴⁵⁾가 탄생되어 대담한 스타일이 디자인되었다.

1970년대 후반부터 소득수준의 향상, 여가시간의 증대에 따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자 평상복의 캐주얼화가 두드러지면서 스포츠웨어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였다.

1980년대의 패션은 지성과 감성을 겸비한 생동감 있는 현대 여성을 중심으로 하였으며 건강을 중요한 개념으로 받아들여 활동적이고 건강한 분위기의 스포츠웨어가 복식에 반영되었다.

특히 액티브 스포츠웨어의 아이디어에서 소재나 형을 변형한 레오타드 타이츠(leotard tights)⁴⁶⁾, 스트랩 팬츠(strap pants)⁴⁷⁾와 남성복으로부터 받아들여진 점프 수우트(jump suit)⁴⁸⁾, 사파리 수우트(safari suit)⁴⁹⁾, 그리고 티셔츠나 폴로 셔츠(polo shirt), 블루종(blouson)⁵⁰⁾, 파카(parka)⁵¹⁾, 페들푸셔(pedal pusher)⁵²⁾, 트레이닝 팬츠(training pants)⁵³⁾, 버뮤다 쇼츠(bermuda shorts)⁵⁴⁾, 복서 쇼츠(boxer shorts)⁵⁵⁾ 등의 아이템들이 착용되었다.

전체적인 흐름은 바디컨셔스(body conscious)와 슬림라인으로 꼭 끼는 스트레치 소재의 스키 팬츠와 아래로 좁아지는 데이퍼드 팬츠를 입었으며 쇼츠는 약간 여유 있는 형으로 나타났으며 에너지의 위기로 인해 킴핑 소재의 사용이 각광을 받았다.

이 시기는 스포츠웨어의 캐릭터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시기이다. 고부가가치의 스포츠웨어가 캐주얼웨어로 패션화되었으며 캐주얼웨어의 차별화와 고급화에 스포츠웨어가 많은 영향을 끼쳤다. 사람들은 자신의 사회, 경제적 신분상승의 이미지를 고급 캐릭터 스포츠웨어에 의한 스포츠 이미지로 표현하려 했다⁵⁶⁾.

1990년대에 들면서 현대의 고도 산업사회 속에서 일상을 탈피하여 잠시나마 자연의 일부이고자 하는 현대인의 욕구는 아웃도어(out door)⁵⁷⁾ 생

45) 1958년 미국의 듀폰사에서 개발한 폴리우레탄의 단성섬유이다.

46) 타이트한 긴 소매와 반 소매 티셔츠 상의가 타이츠에 그대로 이어진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47) 끈이 달린 스포티한 바지

48) 원래는 항공복의 일종이었는데 여성복에 도입되어 상의와 팬츠가 하나로 이어진 것이다.

49) 수렵이나 탐험대 등이 착용하는 벨트와 포켓이 많이 부착된 활동적인 무드론 가건 수우트를 말한다.

50) 등을 볼록하게 한 블라우스나 헝까지 오는 점퍼풍의 상의

51) 에스키모 말에서 온 것으로 등산이나 스키에 쓰이는 방풍, 방한을 위한 후드가 달린 의상

52) 종아리 가운데까지 오는 바지로 자전거의 페달을 밟는데 편리하게 되어 있어 이렇게 부른다.

53) 운동할 때 이용하는 긴 팬츠를 말한다. 흰색 목면이 많이 사용되었으나 최근에는 저지 등의 신축성 있는 천을 사용한다.

54) 무릎이 보일 정도의 길이이며 바짓부리가 훌쩍하게 된 팬츠.

55) 복싱선수가 착용하는 쇼트팬츠를 말한다. 허리부분에 고무줄이 들어있고 끝단이 약간 퍼진 모양이다.

56) 조정미, *op. cit.*, p.144.

57) 비경제적인 스포츠, 자연을 활동무대로 하는 레저스포츠.

활에 대한 끊임없는 요구를 증가시켰으며 아웃도어웨어에 대한 관심은 고조되고 있다.

현재의 아웃도어웨어의 전체적인 이미지는 액티브 스포츠, 워킹 등의 기능성과 패션이 혼합되어 실용적 디자인과 기능성 그리고 세련됨이 함께 공존하는 것을 원칙으로 자연환경 속에서 인간을 쾌적하게 적용시키는 것으로 자리잡고 있다.

결과적으로 20세기 후기의 스포츠웨어는 각 스포츠의 특성에 따라 인간이 신체미와 운동미를 증가시킬 수 있는 독특하고 창의적인 실루엣과 라인을 추구했으며 스포츠웨어의 아이템들이 일상복으로 착용되고 있고 이것은 일반 복식디자인에 끊임없는 자극을 주어 현대복식에 깊이 자리잡고 있다.

IV. 스포츠웨어에 표현된 성(性)의 이미지

본 장에서는 현대복식에 깊숙이 자리잡고 있는 20세기 후반 여성의 스포츠웨어를 성(性)의 관점에서 분류하여 남성적 이미지와 여성적 이미지 그리고 중성적 이미지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1. 남성적 이미지

수세기 동안 서구사회에서 여성은 스커트를 입었고 남성은 바지를 입었던 것과 같이 의복 습관 중에는 성을 구별하기 위한 것이 뿌리깊게 이어져 왔으나 스포츠와 기능주의의 영향이 증대됨에 따라 그 관습은 완화되었고 스포츠의 보급은 확대되어 현대로 가는 여성생활에 변화를 초래하였다.⁵⁸⁾

여권존중의 한 수단으로 발표된 '블루머'란 바지는 그 당시 좋은 반응을 얻지 못하였으나 스포츠가 여성생활에 널리 보급되면서 스포츠웨어로 애용되었으며 사이클링이 유행되면서 더욱 환영 받았고 승마에서도 일찍이 여성들은 바지를 입게 되었다.⁵⁹⁾

19세기말에는 대단히 많은 여성들이 테니스,

크리켓, 골프 등의 활동적인 스포츠를 즐기기 시작하였고 이러한 여가활동을 즐기기 위해 여성들은 통 넓은 바지와 셔츠 블라우스, 모자 등을 착용하였다.

또한 자동차의 대량생산과 스포츠의 붐으로 바지는 스포츠웨어의 필수적인 항목으로 강조되었고 일반적인 의복에 도입되어 기능성과 활동성이 가미된 여성복에 자리잡아 남성복과의 격차가 좁혀졌다.

1, 2차 세계 대전을 겪으면서 직업인으로 정착한 여성들은 활동하기 편리한 스포츠웨어로 사냥이나 승마 시에 많이 착용했던 테일러드 수트를 모방한 스타일과 청바지, 그리고 부드럽고 긴 팬츠를 선호하였는데 이것은 여성의 남성적 이미지를 나타내며 매니시 룩(manish look)으로 표현되었다.

이러한 팬츠 룩을 포함한 매니시 룩은 여성이 남성의 옷을 입음으로써 의복을 통해 남녀평등을 주장하고 남녀의 동일함을 확인하기 위한 수단이었으나 오늘날의 매니시 룩은 클래식하고 중후한 멋을 즐기려는 의도에서 남성복의 디자인을 모방한 여성복을 즐겨 입는다.

또한 여성의 남성적 이미지를 표현하는 매니시 이미지에 포함되는 복식을 살펴보면 '멋쟁이 신사'라는 남성성향의 여성패션인 덴디(dandy) 룩과 해군의 복장과 바다의 이미지를 담은 머린(marine) 룩 그리고 육군의 군복에서 영감을 얻어 디자인 한 밀리터리(military) 룩의 패션이 포함된다.⁶⁰⁾

한편 젊음과 건강에 대한 열정은 현대까지 계속되고 있으며 이러한 젊음과 건강에 대한 열망은 어깨를 강조하는 실루엣을 탄생시켰고 넓은 어깨를 남성미의 대명사로 여겨 자신의 건강미를 표출하려 하고 이는 바디컨셔스 룩으로 반영되었다.

이러한 바디컨셔스 룩은 자신의 건강미를 자연스럽게 표출하고자 하는 '90년대의 스포츠 스타일'에서 보여지는데 이는 두 가지 스타일로 나뉘어진다. 모든 신체를 감싸는 올인원(all-in-one)

58) 정재희, 20세기 여성 스포츠웨어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1, p.50.

59) 정재희, *Ibid.*, p. 51.

60) 정삼호, 현대패션모드, 교문사, 1996, pp.119-120.



〈그림 4〉 남성적 이미지의 스포티브 룩,
(Norma Kamli, *Modain*,
1994, N.92 p.29)

스타일과 신체를 노출시키는 스타일이다⁶¹⁾.

〈그림 4〉는 이중 올인원 스타일로 남성적 이미지에 포함되는데 이 유형은 스트레치 소재가 두드러지며 라이크라와 같은 소재 본연의 광택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되고 있다. 또한 광택뿐만 아니라 대담한 원색의 강렬한 색상 대비와 부분에서부터 전체에 이르는 대담한 프린트가 특징적이다⁶²⁾.

또한 각종 합성섬유의 개발로 인한 스포츠웨어의 발달과 우주탐사라는 사회적 이슈가 결합되어 활동적이고 획기적인 사이버 스포츠 룩(cyber sports look)⁶³⁾을 출현시켰는데⁶⁴⁾ 주로 공상과학 영화나 소설에서 우주를 배경으로 헬멧형 모자와 기하학적인 커팅처리로 미래의 이미지를 담고 있는 것이 특징이며 소재로 비닐, 플라스틱, 금속적인 소재를 사용한다⁶⁵⁾.

Andre Courrage의 작품인 〈그림 5〉와 같이 남성적 이미지를 나타내는 사이버 스포츠 룩의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는 스포츠웨어의 기능적인



〈그림 5〉 남성적 이미지의 사이버 스포츠 룩,
(Andre Courrges, *Modain*,
1994, N.92, p.160)

디자인 요소가 패션화되었다. 스키웨어와 겨울 스포츠웨어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쿨팅과 패딩을 사용한 디자인은 일상복으로 많은 인기를 얻었다. 쿨팅과 패딩을 사용한 의복은 걸감과 안감에 숨이나 오리털 등의 보호재를 넣어 보온의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부피감이 첨가되어 남성적인 이미지를 더욱 부각시킨다. 그리고 헬멧이나 수경 등 신체의 보호의미로 착용되어지는 아이템이 신선함과 함께 남성적인 멋을 더하고 있다⁶⁶⁾.

사이버 스포츠 룩의 다른 특징은 다양한 새로운 소재의 등장에 의한 전위성⁶⁷⁾이라 할 수 있다. 투명 비닐 소재와 기하학적인 패턴을 사용한 스포츠웨어는 방수라는 기능성과 신체의 부분적 노

61) 정정미, 허이패션에 나타난 스포츠 스타일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p.50.

62) *Ibid.*, p.51.

63) 패션에서의 스포츠이미지와 미래지향적인 cyber 이미지를 동시에 반영한 것.

64) 정정미, *op. cit.*, p.47.

65) 정삼호, *op. cit.*, p.146.

66) *Ibid.*

67) *Ibid.*, p.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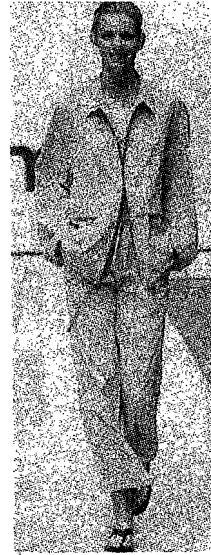
<그림 6> 남성적 이미지의 스포티브 룩
(Chanel, *Modain*, 1994년,
N.90, p.184)

출을 특징으로 한다.

사이클링복과 같이 속도를 내기 위한 스포츠웨어에서는 실버 광택 소재나 비닐, 비닐 코팅 소재에 이어 고무재질의 소재가 각광받고 있으며 라텍스의 개발에 의해 하이패션뿐만 아니라 스트리트 패션(street fashion)에 이르기까지 영향을 주어 투박하고 강한 남성적 이미지를 반영하고 있다.

또한 방수·방풍 소재의 개발은 의복표면의 광택을 유발시켰으며 이러한 광택은 자연광택과 다른 기계미와 인공미를 표출하는데 중요한 소재가 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광택소재는 메탈칼라뿐만 아니라 내온칼라 등의 밝은 색상과 결합하여 사이키델릭한 인공미를 표출해 내고 있다.

Chanel의 작품인 <그림 6>과 Comma의 작품인 <그림 7>은 남성복의 아이덴티 블루종이 여성의 복식에 도입되어 스포티브 이미지의 일상복으로 착용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7> 남성적 이미지의 스포티브 룩
(Comma, *Collezioni Pret-a porter*,
S/S, 1999년 2월호, N.68, p.339)

이와 같이 남성적 이미지의 스포츠웨어는 여성의 사회활동을 과시하기 위한 스타일로 시작하여 오늘날 현대문명의 발달로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을 갖게 됨에 따라 더욱 진화화, 세분화 되어가고 있다. 그리고 첨단 소재의 개발과 디자인의 혁신, 인체 공학적 연구의 활발함으로 기능성은 과학이 될 뿐 아니라 남성적인 이미지를 나타내는 스포츠웨어로 자리잡게 되었다.

2. 여성적 이미지

여성적 이미지라 함은 남녀의 성 차이를 인정하고 여성의 성적 매력을 표현하며 남성중심의 시각에서 탈피하여 여성의 특징을 표현한 패션이라 할 수 있다⁶⁸⁾.

이러한 여성적 이미지를 표현하는 방법은 크게 몸의 일부분을 대담하게 노출하는 것과 인체에 밀착시키는 바디컨서스, 그리고 평화롭고 로맨틱한 분위기로 여성적 이미지를 나타내는 것이다.

여성적 이미지를 표현하는 스포츠웨어는 신체

68) 정홍숙, 복식문화사, p.318.



<그림 8> 여성적 이미지의 스포티브 룩
(ABS USA사의 라이크라 스판텍스
탱크 드레스 WWD., 94년 3월호 p.60)

의 자유로움을 방해하는 요소를 배제하기 시작한 결과 과도한 부피와 무게, 압박감을 주는 불필요한 의복이 사라지고 의복의 종류가 간소화되고 장식의 배제로 의복은 단순화되었으며 신체를 노출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스타일은 테니스웨어와 복싱수트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고⁶⁹⁾ 그 후 일반화되어 젊은 여성들에게 착용되었다(그림 8).

처음 테니스웨어에서 쇼츠가 등장했을 때 그 당시 일상복으로 인정될 수 없을 정도로 짧은 길이였으며 다리의 노출로 상당히 민감한 반응을 보였으나 그 후 일반화되었고 이러한 테니스웨어를 기본으로 1960년대 미니스커트가 생겨난 것이다⁷⁰⁾.

미니스커트는 각선미라는 여성의 신체 일부분을 부각시키는데 공헌하였고 인간의 자유의지의 표현수단인 노출현상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계기가 되어 핫팬츠에 의한 다리의 노출과 노브라, 시스루(see-through) 룩, 그리고 비키니



<그림 9> 여성적 이미지의 스포티브 룩
(ELLE, 98년 7월호 N.69, p.139)

수영복의 착용 등이 대중패션으로 자리잡게 하였다(그림 9).

또한 1980년대 여성들 사이에 유행된 에어로빅은 체중조절을 위한 운동이 되었고 레오타트, 레그웨어, 러닝슈즈, 머리띠는 체육관에서 뿐만 아니라 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차림이 되었다.

한편 색상의 사용에 있어서도 흰색 유니폼만이 허용되던 윌블던(Wimbledon) 테니스 경기에서 컬러풀한 유니폼이 허용되었다. 이를 계기로 일상복에 밝은 다양한 색상을 배치하여 여성의 젊고 발랄한 이미지를 느끼게 하였으며 여성의 험라인보다 더 짧게 표현된 숏팬츠를 착용하여 여성이라는 상적인 표현을 강조하였다.

또한 스포츠웨어의 첨단소재 개발로 투명한 옷감을 통해 시스루 드레스⁷¹⁾와 그물망기법으로 신체의 일부를 비쳐 보이게 하여 여성의 아름다운 피부가 드러나는 패션이 등장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일상복생활에도 나타나 브래지어나 속옷을 걸치지 않고 옷을 입는 시스루 룩이 유행되었다. 1990년대의 시스루 룩은 기존의 부드럽고 환상적인 느낌과 달리 여러 가지 신소재를 혼합하

69) 정정미, *op. cit.*, p.51.

70) 유송옥, *op. cit.*, p.64.

71) 강정화, 현대패션에 표현된 페미니즘에 관한 연구, 복식학회지, 1996, 11, p.219.



<그림 10> 여성적 이미지의 스포타브룩
(EHE, 94년 3월호, p.196)



<그림 11> 여성적 이미지의 스포티브
(EHE 95년 8월호, Istante광고)

여 스포티한 감각과 섬세하고 우아한 느낌을 동

시에 표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그림 10).

또한 <그림 11>은 니트물 소재로 신체에 밀착시켜 여성적인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여성적 이미지를 나타내는 스포츠웨어는 오늘날 스포티 이미지뿐만 아니라 일상복의 차림으로 널리 착용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달리 테디 티닝(Teddy Tinling)이 디자인한 테니스복인 와플 피크 드레스(waffle pique dresses)는 높은 목선과 힙선이 부채꼴 모양을 한 드레스였다. 평화롭고 로맨틱한 분위기로 여성적인 이미지를 담고 있는 이 드레스는 당시 크리스찬 디오르의 뉴욕과 함께 많은 사랑을 받았다. 이 밖에도 흰색 테니스복에 색상이 있는 자수나 레이스, 밴드 등을 치마단에 대어 여성미가 가미된 테니스복이 필수적인 것이 되었다. 이렇게 스포츠웨어의 여성적 이미지는 현대에도 꾸준히 사랑을 받고 있으며 모자와 보석, 스카프 등으로 그 여성적인 아름다움을 더하고 있다.

이렇듯 스포츠웨어의 여성적 이미지 복식은 격식을 갖춘 옷차림에서 해방되어 활동하기 편하고 가벼운 옷차림을 즐기려는 욕망에서 비롯되었고 편안함과 쾌적함 즉 활동성과 기능을 살린 디자인과 소재, 색상 그리고 로맨틱한 여성미를 담은 패션으로 표현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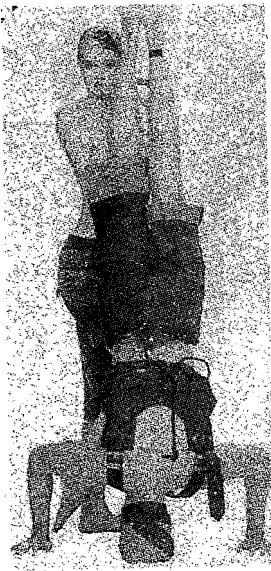
3. 중성적 이미지

스포츠의 개념이 생기기 시작한 18세기 여성들은 남성복에서 바지와 르덴고트를 빌려왔는데 이는 여성의 의복에 많은 영향을 주었으며 스포츠웨어의 중성적 이미지의 기원이 되었다.

스포츠웨어의 중성적 이미지의 대표적인 아이템인 바지는 레저와 스포츠의 참여가 더욱 증감에 따라 스포츠웨어로 특징 지워져 버뮤다 팬츠, 페달 푸셔, 쇼트 쇼츠 등이 유행 되었으며 파자마, 슬랙스, 팬츠 등의 모든 바지형태가 발전하였고⁷²⁾ 이제 바지는 여성복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부분으로 완전히 정착되었다.

1951년 보그지에는 「“His” and “Hers” fad was underway」라는 제목으로 사회적으로 저명한 부부가 똑같은 형태의 테니스셔츠를 입은 사

72) 신영전, *op. cit.*, p.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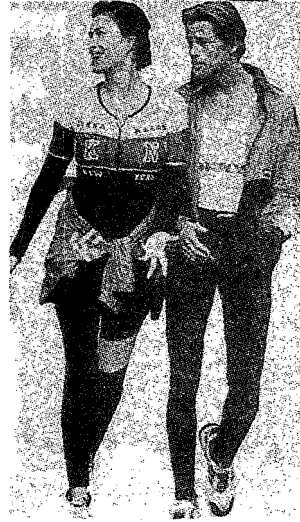


<그림 12> 중성적 이미지의 스포티브 룩
(Michiko London, *Fashion Today*, 94년 6월호)

간이 실릴 정도로 유니섹스(uni sex) 룩이 사회 전반에 확산되었다⁷³⁾.

1960년대에 이르러서 젊은 세대들이 거리농구와 스케이팅 등의 거리 스포츠에 참여하면서 중성적 이미지의 스포츠웨어를 즐겨 입었고 특히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한 리바이스 진(levis jean)이 여성들에게 도입되어 결혼식을 막 끝낸 신랑신부가 똑같은 헤어스타일과 진 복장으로 신혼여행을 떠나는 것을 볼 수 있을 정도로 진은 가장 인기 있는 남녀 공동의 의상이 되었으며⁷⁴⁾ 블루진은 대표적인 중성적 이미지의 스포츠웨어로 일상생활에 깊숙이 자리잡았다(그림 12).

스포츠의 확산으로 스포티브 룩이 활성화되어 작업복과 스포츠웨어의 형식과 감각을 살린 디자인이 정장으로 이용되었고 대학가에서는 중성적 이미지의 유니섹스 룩이 크게 인기를 얻었으며 이는 사회전반에 영향을 미쳐 남녀노소, 계급의 구별이 없는 평등의식이 의상에 표현되었으며



<그림 13> 중성적 이미지의 스포티브 룩
(DKNY., *Fashion Today*, 96년 6월호, p.96)

'70년대에는 캐주얼한 스포츠웨어가 유행하였다.

한편 비치는 사스루 셔츠와 몸에 꼭 맞는 보디 셔츠, 운동할 때 입는 탱크 탑 등은 남자가 공동으로 입었으며 여성들이 주로 사용하는 벨벳틴, 벨루어 등의 소재와 풋부리로 만든 의상들은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들도 착용하였는데 여기서 남성이 여성화, 여성이 남성화되는 경향을 볼 수 있다(그림 13).

또한 스포츠웨어의 중성적 이미지는 사이클링, 스케이팅, 스키 등의 스피디한 기능성이 요구되는 스포츠의복에서 볼 수 있는데 스포츠 소재에 있어서 라이크라의 개발과 같은 최첨단 소재의 개발은 제2의 피부라는 말을 실감나게 하며 그레이머스한 여성미와 강인한 남성미가 모든 성 사이에 공존함을 보여주었다(그림 14).

이것은 앤드로지너스(androgynous)는 룩으로 표현되며 여성다움이나 남성다움을 초월한 이성의 요소를 공유한 새로운 현상으로 중성적 또는 성개념이 사라진 성의 혁명이며 '80년대에 이르

73) Karlyne Anspach, *The Way of Fashion*, Iowa state University, 1969, p.328.

74) 신상옥, *op. cit.*, p.360.



<그림 14> 중성적 이미지의 스포티브 룩
(D&G., *Collezioni Donna Bis, A/W*,
1987년 10월호, N.47, p.31)



<그림 15> 중성적 이미지의 스포티브 룩
(*EHE* 94년 7월호, N.107, p.174)

러서 여성의 매니시 현상과 '80년대 유행한 짧은 머리의 헤어스타일, 락(rock)가수들의 여장이나 남성들의 메이크업과 남녀 구별없이 자유롭게 걸쳐 입은 무대의상 등 다양하게 변화되어 표현되었다.

디자이너 루디건릭(Rudi Gernreich)은 유니섹스 의복처럼 중성적인 이미지를 가진 복식이 미래 패션의 스타일이 되리라고 확신하였으나 아직까지 루디건릭의 예언은 실현되지 않았다⁷⁵⁾.

<그림 15>에서와 같이 중성적 이미지를 가진 복식은 현대의 모든 컬렉션에서 발표될 정도로 보편화되었으며 거리에서 남녀를 옷차림만으로는 구분하기가 어렵게 될 정도가 되었다.

오늘날의 스포츠웨어는 스포츠 행위를 증진시켜주는 운동복의 역할을 뛰어넘어 일상복으로 널리 착용되고 있고 스포츠와 스포츠웨어는 단순히 유행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아니라 복식디자인에 영감을 주는 이미지를 제공할 뿐 아니라 복식디자인의 한 분야에서 전반적인 유행을 창출해 나가고 있다.

기존의 가치와 진리가 붕괴되고 새로운 세계의 전환기에 접어들면서 의복의 영역에서도 표현성과 장식성을 추구하기보다 실용적인 측면의 기능성이 부각되는 요즘 스포츠웨어는 특별한 행사나 격식을 차려야 하는 옷을 제외한 모든 인포멀웨어(informal wear)로 착용되어지고 있으며 스포츠의 대중화로 일상복에서 여성과 남성을 구분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이렇듯 중성적 이미지의 스포츠웨어는 남녀구별 없이 마음대로 옷을 입어 남성 공용의 의복에서 표현되고 있다. 이는 형식에 얽매이지 않으며 성 역할 차이가 사라지고 있는 오늘날 성벽을 초월한 하나의 개성적 존재로서의 인간의 이미지를 부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표 1>은 스포츠웨어와 현대복식에 나타난 성적 이미지를 요약·정리한 것이다.

V. 결 론

스포츠는 현대사회와 인간의 삶을 윤택하게 이어주는 동시에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으며 스포츠 산업은 날로 번

75) 정제희, *op. cit.*, p.52.

<표 1> 스포츠웨어와 현대복식에 나타난 성적 이미지

분류 이미지	스포츠웨어	현대복식
남성적 이미지	블루머의상·바지의 착용 짙음과 건강 추구·넓은 어깨 강조 속도를 내기 위한 사이클링복	메니시 룩 바디컨서스 룩 사이버 스포츠 룩
여성적 이미지	노출·의복의 간소화, 장식배제 인체의 밀착 드레시한 테니스복	미니스커트, 쇼츠 시스루, 바디컨서스 뉴룩
중성적 이미지	길거리농구, 스케이트의복 제 2의 피부·최첨단 소재	유니섹스 룩, 앤드로자너스 룩

창하고 스포츠는 현대사회의 핵심적이며 보편적인 사회현상으로 자리잡고 있다.

따라서 오늘날의 스포츠웨어는 운동복으로만이 아니라 스포티한 감각을 지닌 일상복으로 착용되고 있으며 스포츠와 스포츠웨어는 단순히 유행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아니라 복식디자인에 영감을 주는 이미지를 제공하고 복식디자인에 전반적인 유행을 창출해 나가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스포츠웨어의 출현 배경과 변천과정을 살펴보았으며 스포츠웨어를 성(性)관점에서 분석하여 스포츠와 함께 변화하는 여성복식의 변화하는 양상을 밝혀보며 일상복으로 정착한 스포츠웨어의 위치를 인식하였다.

또한 스포츠가 현대사회의 각 분야에 침투되어 일상화되어짐에 따라 스포츠웨어는 기능적으로 변화되어 일상복으로 도입, 발전하였고 현대 스포츠웨어는 일상생활에 깊숙이 정착되어 때와 장소, 나이에 상관없이 입을 수 있는 생활 속의 옷이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현대복식에 일상복으로 자리잡고 있는 20세기 후반의 여성 스포츠웨어를 성(性)의 관점에서 분류하여 남성적 이미지와 여성적 이미지 그리고 중성적 이미지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남성적 이미지의 스포츠웨어는 여성의 사회활동을 과시하기 위한 스타일로 시작하였고 오늘날 현대문명의 발달로 더욱 세분화, 전문화되고 있다. 또한 짙음과 건강에 대한 열망은 어깨를 강조하는 실루엣을 탄생시켰고 넓은 어깨를 남성미의

대명사로 여겨 자신의 건강미를 표출하려 하고 이는 바디컨서스 룩으로 반영되었다. 그리고 첨단 소재의 개발과 디자인의 혁신, 인체 공학적 연구로 기능성은 남성적인 이미지를 나타내는 스포츠웨어로 자리잡게 되었다.

여성적 이미지를 표현하는 스포츠웨어는 신체의 노출과 인체에 밀착시키는 바디컨서스, 그리고 로맨틱한 여성미를 표현한 복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스포츠웨어의 여성적 이미지 복식은 격식을 갖춘 옷차림에서 해방되어 활동하기 편하고 가벼운 옷차림을 즐기려는 욕망에서 비롯되었고 편안함과 쾌적함 즉 활동성과 기능을 살린 디자인과 소재, 색상 그리고 로맨틱한 여성미를 담은 패션으로 표현되고 있다.

중성적 이미지의 스포츠웨어는 유니섹스 의복으로 표현되었고 남녀노소 계급의 구별이 없는 의상으로 부각되어 캐주얼한 스포츠웨어를 착용하였다.

1960년대에 이르러서 젊은 세대들이 거리농구와 스케이트 등의 거리 스포츠에 참여하면서 중성적 이미지의 스포츠웨어를 즐겨 입었고 블루진은 대표적인 중성적 이미지의 스포츠웨어로 일상생활에 깊숙이 자리잡았다.

또한 스포츠웨어의 중성적 이미지는 사이클링, 스케이팅, 스키 등의 스포티한 기능이 요구되는 스포츠의복에서 볼 수 있는데 스포츠 소재에 있어서 라이크라의 개발과 같은 최첨단 소재의 개발은 제2의 피부라는 말을 실감나게 하며 그레

머스한 여성미와 강인한 남성미가 모든 성 사이에 공존함을 보여주었다.

이렇듯 앞으로의 스포츠웨어는 남녀노소를 막론하여 더욱 확대될 뿐 아니라 사회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발전할 것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21세기를 맞이하면서 미래의 스포츠와 미래패션에 대해 깊이 연구한다면 유익하리라 여겨진다.

참고문헌

- 강정화. 현대패션에 표현된 페미니즘에 관한 연구, 복식학회지 제30호, 1996.
- 곽미영. 여성해방운동이 서양복식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중앙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0.
- 김미선. 근대 서구여성복식의 기능화 요인에 대한 고찰, 숙명여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3.
- 대한체육회. 체육백서, 1972.
- 문경옥. 기능적으로 본 여성양복바지의 변천에 관한 고찰-19세기와 20세기를 중심으로-, 숙명여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1.
- 박혜자. Bloomer의상의 역사적 고찰, 경희대학 교논문집 제16권(인문사회과학편), 1987.
- 서울시 교육위원회. 올림픽 교육자료, 1984.
- 신영진. 양복바지에 관한 역사적 고찰, 홍익대 산업미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4.
- 원혜정. 스포츠웨어의 머천다이징을 위한 텍스타일 디자인연구, 상명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
- 유송옥. 복식의장학, 수학사, 1975.
- 유송옥, 이은영, 황선진. 복식문화, 교문사, 1996.
- 이영민. 스포츠웨어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1992.
- 이화연, 남동원, 손미영 역, Marilyn J. Horn, Lois M. Gurel 저. *The Second Skin*, 까치, 1988.
- 이효재. 여성과사회, 정우사, 1989.
- 정삼호. 현대패션모드, 교문사, 1996.
- 정재희. 20세기 여성 스포츠웨어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1.
- 정정미. 하이패션에 나타난 스포츠스타일에 관한 연구, 홍익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 정현숙 역, David Bond 저. 20세기 패션, 경춘사, 1992.
- 정홍숙. 근대복식문화사, 교문사(1993), 복식문화사, 교문사, 1989.
- 조정미. 스포츠가 복식디자인에 미친 영향에 대한 연구, 카톨릭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집 제15권, 1995.
- Black, J. Anderson & Madge, Garland, *A History of Fashion*, William Monow's Com. Inc. 1975.
- Contini, Mila, *500 Years of Fashion*, Chartwell Book Inc. 1977.
- Julian, Robison. *Fashion*, Oresko Books Ltd, 1978.
- Karlyne, Anspach, *The Way of Fashion*, Iowa State University, 1969.
- Madge, Garland, *The Changing from Fashion*, Praeger Inc, 1970.
- Martin, Richard, *All American: A Sports Wears Tradition*, F.I.T. 1985.